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13일(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 당 자	• 보건정책팀장 강경희 ☎ 440-2711 • 담당자 박미란 ☎ 440-271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1:5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협력
-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
-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달성,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한 뜻 -
- 협력사업 개발, 정책개발 · 실행과제 도출, 재난대응 체계 마련 등에 협력 -

국립대학병원 부재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천시가 서울대학교병원과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국가재난 대응 의료시설 확충 체계 마련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13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연수)과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시장과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 신상도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와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손을 잡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달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천지역에 보다 탄탄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국립대학병원은 지방의료원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시로서는 지역의 의료취약지역 여건 개선, 수익성이 낮은 의료·재난·감염병 등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의원-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와 연계되는 공공의료 중심의 전달체계를 다져 나가야 할 상황이다.

인천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달성과 인천지역의 공공의료를 탄탄하게 꾸려나가기 위해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사업의 개발 및 확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과제 발굴, 정책개발 및 실행과제 도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감염병 및 항공 관련 국가재난 대응 의료시설 확충 등 체계 마련,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의료 불균형 해소, 재난의료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과제 도출 및 실행에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와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이번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에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상호 협력하고, 한 걸음 더 발전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12:10분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